

새해 새 설계

이 현 수 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장

“창조경제 거점화 프로그램 추진”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은 ‘산업의 융합’입니다.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조경제의 거점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수(52)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은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산업단지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산업이 클러스터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업과 문화, 기술과 문화가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별 미니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제조업체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본부장은 “광주시 제조업의 기반인 자동차산업과 전자부품산업을 한데 묶어 텔레매틱스(Telematics,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 전자 분야를 개척하거나, 대불산단의 조선업체와 광주의 광산업을 결합시키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가 분양완료된 장성나노단지에도 이전을 희망하는 타지의 자동차 및 부품업체 등을 유치해 지역 기반산업의 전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차·전자, 조선·광산업 결합

노후산업 리모델링도 박차

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군산과 대불, 익산 등 3개 산업단지에서 진행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문화, 복지, 교육, 편의 기능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남권 산업단지가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세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광주 첨단단지도 내년에는 정부의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책과 관련, 이 본부장은 “지역 중소제조업체는 여전히 정보력 부족에 시달리거나 시장 진출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애로를 계속 발굴해 지원기관과 연계시키는 한편, 산단공이 기업 성장 지원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플랫폼 링크어(Linker)’로의 역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광주·전남지역에는 기술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품업체로서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많고 있다”며 “완성품을 생산해 틈새시장이나 블루오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혁신팀 기획부장과 서남지역본부 기획총괄처장, 전라사업처장 등을 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형마트 3사,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

〈이미트·롯데쇼핑·홈플러스〉

광주지법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위해 적절한 방법”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일수 등 기존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채 영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9일 이미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급선무”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계량 없이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

난 2012년 8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기업단체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광주지법 판결에 승복하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준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유통법과 상생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마트 상품공급

의 신규출점을 중단하라”며 “전국 80만 중소도매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도매업(상품공급사업) 시장에 대한 무리한 진출을 즉각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3~4회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이미트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은, 설 경영자금 3000억 중기 대출

업체당 한도 최고 30억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다가오는 설에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자금 3000억원의 ‘설 특별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편성,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이와함께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동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 해준다.

이번 설 특별 대출은 명절기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 결제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빠른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설 특별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차입(C2)시 최고 1.3% 포인트까지 우대하여 업체의 금융부담까지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2014년 경영목표로 설정한 광주은행은 설 특별자금과 함께 지난해 10월말 출시한 ‘아바매! 장터사랑 대출’로 현재까지 105억원 상당을 지역 600여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화점 상품권 패키지 설 선물 인기

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직원이 최근 설 명절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품권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까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각각 25만원, 90만원, 17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트리니티 패키지’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준금리 연 2.50%

한은, 8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자칫 수렁으로 빠뜨리고 1000조원을 풀려난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에 큰 짐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연합뉴스

설 차례상 전통시장 20만원, 대형마트 29만원

aT, 39곳 가격 조사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0만6천원, 대형마트에서는 29만5000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 14개소와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설 차례상에 들어가는 26개 식재료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20만6000원, 대형유통업체는 29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에 비해 각각 0.8%, 1.7% 하락한 것이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대다수 제수의 생산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렸다

고 aT는 설명했다.

사과와 배는 낙과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25.1%, 63.0% 증가했고, 월동배추와 무 등도 생산량이 충분히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나물류(도라지, 고사리)와 임산물(대추, 꽃감) 등은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이 줄었고, 소고기와 계란은 수산물에 대체하기 위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aT는 앞으로도 차례상 구입비용과 구매절기, 선물세트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온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은행 옆 무례쥬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